

건축부채 없는 성전 하느님께 봉헌, 신자들 의무



과와 본당 운영관리비 적신호로 특단 조치를 세워야 할 것이다. 본당 일부 교우들은 성당은 우리 것이 아니고 교구의 자산이므로 부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혹평하고 있다. 행정상 성당은 교구 자산이지만 건축부채는 우리 신자들의 몫이다. 언제 가는 부채를 다 상환하여 부채 없는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당 살림을 건축재정을 세워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각 단체 성탄 성전 꾸미기를 한다. 25주년 연혁사는 책자 편집 발간 비용지출이 발생하므로 파일이나 USB 정리하고 기도문은 우리 본당 현실에 맞게 「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협의회는 10월 20일(주일) 교육관 2층 201호(요한 방)에서 사목협의 위원 16명 참가한 가운데 사목회장의 주송으로 시작기도와 복음 묵상 이어 각 분과 활동내용과 활동계획을 서면보고 의한 특이한 사항 발표를 전례분과는 성체분배 신임 교육과 재교육 7명 대방동 성당. 교육, 선교분과, 견진교리 신청자 69명. 생명. 사회사목, 행복 시니어 아카데미 돼지 전염병의 식단 차리기 협조. 여성 구역장분과 모범 구역장 선발. 시설. 관리분과, 산하 단체인 본당 사랑회 대림 첫 주 전시 성탄 구유 꾸미기. 청소년분과. 청년연합회장 임기만료제 선출. 재정분과 2020년 각분과 예산안 산정 10월 31일까지 제출 요구. 발표 후 사목회장은, 내년 본당 설립 25주년 맞이하여 연혁사 편찬 위해 수석부회장과 기획, 홍보 운영위원회 구성과 본당 설립 25주년 기도문 작성해 미사 전, 각 단체회합 시 봉독, 각 분과 예산 산정서는 본당 금년 건축기금수입과 지출에 맞추어 사목위원회에서 11월 30일 최종확정. 신부님께서 '본당 부채가 금년도 건축현금 수입에 의하면 대출 이자 갚기도 부족하다. 계속 이자 상환의 압박 속에 각분

사 찬미 청원」의 뜻이 포함돼야 한다. 자리를 피해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사목협의회 위원들 서로 간 토의를 해 보세요.' 하고 마침 축복을 하고 퇴장 후 사목협의회 위원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임신부님께 지역 순방 미사를 건의 동참해 건축현금과 교무금 누락 없이 새로 선정과 납부의무, 건축현금과 교무금 인상 대한 홍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설립 25주년 기도문을 전 신자들의 「감사, 찬미, 청원」 뜻을 넣기 위해 지정 장소에 자유롭게 게시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와 실시를 위한 주임신부님께 건의하기로 했다.

